테마칼럼

생명과 밥상 | 여성과 소비 | 교단일기 | 스토리텔링 파워

서로 소중하여 서로 위하며 사는 세상

이근택

'나는 지금 권투 선수 되어 링 위에 서서 날리는 주먹마다에 울분과 집념을 불태우며, 분노와 수치 속에 온몸을 떨면서 링을 떠날 그 복서를 찾아 오늘도 뛰네, 라이라라 라라라라' 나는 노래를 부른다.

1977년 제1회 MBC대학가요제에서 박찬, 조근익이 부른 번안곡 '권투선수'. 따뜻한 인간애와 짙은 서정으로 가슴 저리게 하였던 노래. 1969년에 Paul Simon이 작사, 작곡하여 Simon & Garfunkle이 발표한 이 노래는 어린 권투 선수의 가난한 삶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름답고 슬프다.

하지만 나는 이 노래의 끝 부분만 부른다. 아주 괴상하고 작위적인 목소리로, 음정 박자 무시하고 웅변하듯, 교탁을 움켜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부른다. 평소 같지 않은 위압적인 태도에 애들은 긴장한다. 노래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한 표정이다.

잠시 쉬었다가, 나는 다시 한 번 가사의 끝 부분을 외운다. 한 마디, 한 마디씩 끊어가며.

"우리는 지금 링 위에 서 있다. 날리는 주먹마다에 울분과 집념을 불태우며. 이제 1년 남았다. 수능 시험! 우리 차례다. 누군가는…, 온몸을 떨면서 링을 떠나야 한다. 너냐? 분노와 수치 속에 떠나야 한다. 너냐?"

아름다운 노래를 왜곡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지난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한 애들에게도, 방황하고 고민만 하다가 성적이 떨어져 버린 애들에게도 현실은 가혹하다. 나의 어조는 비장하다. 전투 직전의 소대장처럼.

너무 자극적이어서 몇몇 애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다.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숙연하고 결의에 찬 분위기가 될 거라고 기대했다. 얼굴이 굳어지는 애들도 있다. 그런데 한 애가 "노래 참 좋은데요. 가사 좀 적어 주세요"라고 말해 칠판에 가사를 꼭꼭 눌러 적었다. 기대했던 태도는 아니지만 뭔가 효과가 있나 보다 내심 흡족하다. 가사를 옮겨 적는 애들을 보며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하자고 마무리를 지을 참이었다.

그 순간, 어떤 애가 "노래 한 번 더 불러 주세요, 가르쳐 줘요."라고 한다. 이게 아닌 데 싶으면서도 나는 노래를 나누어 선창하였다.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애들은 점점 재미있어 한다. 비장한 노래는 이제 즐거운 노래가 되어버렸다. 에라, 모르겠다. 옆 반에 방해가 될 만큼 노랫소리가 커졌을 때에는, 후렴 부분을 가르치고 있었다. 빠르게 계속되는 '라이라라 라라라라…' 때문에 후렴은 부르기가 어렵다.

몇 번을 다시 부르다가 노랫소리는 더 커져 버렸다. "에이, 선생님 아까 부른 거랑 다르잖아요! 다시 해 봐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친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폭소와 과장된 비난들. "선생님 함께 불러요." 아예 어깨동무하고 부른다. 요 녀석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됐다, 됐어. 두 손을 번쩍 들고 교실을 나섰다.

운동장에 나와서도 노랫소리는 계속 귓가를 맴돈다. 예상치 못한 애들의 태도에 당황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쁘다. 선생은 경쟁의 현실을 걱정하는데, 합창으로 되받아치는 당당함. 어깨동무하는 아이들이 믿음직스럽다. 현실이 어떠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이들의 세상은 희망적이다. "걱정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아이들은 이겨낼 것이다. 태풍을 견뎌내는 나무들처럼. 꿋꿋이, 함께! 나도 어깨동무하듯 두 팔을 치켜들고 흥얼거리며 운동장을 걷는다. 학교정원에는 배롱나무 두어 그루, 붉은 색 하얀 색 꽃 피워 온통 환하다. 그 주변으로 푸른 잎 활짝 펼쳐 어우러진 풀과 나무들.

키 작은 소나무, 깡깡이나무, 반짝이는 호랑가시나무와 철쭉, 봉숭아, 나팔꽃, 호박 넝쿨들(학교정원에다 웬 호박?)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서로 뒤엉켜, 온 가족이 모여 송편 빚는 모습으로 다정하다. 멀찍이 하수구 철망 사이로 연보라색 꽃대를 내어 흔드는 맥문동도 씩씩하다.

그렇다. 자연이나 사람이나 잘난 이나 못난이나 서로 소중하여, 서로 위하며 사는 것을…. 나의 사랑 표현은 잘못되었다. 다시 돌아가서 말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기쁨이며, 축복이라고. 서로의 꿈과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미래를 위해, 학교는 어깨동무하고 함께 노래 부르는 곳이라고.

〈광주일고 교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칼럼

철없는 며느리 옥야

현지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수닷타 장자 부부가 찾아와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 청을 한 후 며느리에게 설법해 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장자는 기원정사를 지어 바친 신심이 있는 재력가이며, 그에 못지 않은 집안의 며느리를 맞았다. 미모는 뛰어났으나 고집이 세고 친정집 힘만 믿는 철없는 며느리로 두 집안의 불화가 걱정되었던 것이다. 장자의 집은 경사 속에 모두가 부처님을 맞아 예배드렸다.

그러나 며느리 옥야가 나오지 않자 식구들은 옥야에게 부처님을 뵈옵고 인사드리기를 간곡히 타일렀다. 옥야는 마지못해 나와 예배드리고 뵙는 순간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모습에 깜짝 놀란 것이었다.

빼어난 아름다움과 편안하고 안정된 온화한 모습,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듯 자비와 위덕, 근엄함에 감히 범할 수 없는 모습, 파도 같은 목소리로 옥야에게 말씀하셨다. 여자는 얼굴이 아름다워 단정하다고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남편을 불쾌하게 함이 단정이 아니다. 얌전하고 행동이 발라야 단정인 것이다. 잠잠히 듣고 있던 옥야에게 이어서 말씀하였다.

또한 여자에게는 어려운 업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태어날 때 기뻐하지 않고, 자라면서 귀여움 받지 못하고 성숙해서는 가족과 이별하고 타인을 섬겨야할 두려움이 있다.

자신의 마음을 모두 알고 친절한 가르침에 옥야는 점점 심취해 부녀자의 예법에 대한 가르침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옥야에게 남편과 시부모를 섬기는 데는 다섯 가지 착함이 필요하다하였다. 1 잠자리에 들 때 제일 늦게 눕고 제일 일찍 일어나야한다. 2 좋은 음식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먼저 드리고 설사 꾸지람이 있어도 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3 진심으로 남편을 대하며 간사하고 음란하지 않아야 한다. 4 남편이 건강하길 원하고 잘 받들어야 한다. 5 남편이 출타하면 집안을 청결하게하고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된다. 3000년 전 부처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동양적 우리의 가정질서를 보는 것 같다.

다시 남편과 어른을 섬기는데 세 가지 나쁜 여자가 있다 하셨다. 1 남편과 어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손하게 행동하며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고 어둡기 전에 자리에 눕고 해가 떠서 밝은 데도 일어나지 않는 여자. 2 남편을 가르치고 꾸짖으려 들며 성내고 맞서 남편의 부족한 점만 보고 외간남자의 좋은 점만 말하는 여자. 3 남편이 일찍 죽어 다른 곳으로 재가를 원하는 여자 이런 여자들은 가정을 파멸시키는 몹쓸 여인인 것이다.

또한 일곱 가지 종류의 아내가 있다. 그대를 위해 말하노니 잘 들어 생활의 지혜로 삼기 바란다. 1 어머니와 같은 아내-남편을 사랑하고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보호하며 싫은 생각이 없이 때를 알아 남편을 받드는 여자. 2 누이 같은 아내-남편을 받들어 섬기되 공경과 정성을 다하고 형제자매와 같은 마음과 친족의 정을 가지고 오직 누이가 형을 섬기듯 하는 여자. 3 친구와 같은 아내-남편을 섬기고 마음을 기울여 의지하되 늘 생각을 같이하며 모든 일을 서로 의논해서 하며 잘못되지 않도록 남편의 힘이 되는 여자. 4 며느리 같은 아내-어른을 받들어 모시듯 봉양하며 아내의 도리를 지키고 예의와 온화함이 있는 여자. 5 종 같은 아내-남편을 어려워하고 거만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늘 고락을 나누며 끝내 아내의 본분을 다해 착한 덕을 쌓는 여자. 6 원수 같은 아내-남편이 반갑지 않고 화난 표정을 짓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워만 있으며 살림 등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며 남편을 원망하고 친척을 욕되게 하는 여자. 7 도둑 같은 아내-남편의 재산을 물 쓰듯 하고 빼돌리며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고 남편을 해치거나 빨리 죽기를 바라는 여자다.

부처님은 설법을 마친 후 어떤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으셨다. 부처님의 간절한 가르침에 고개 숙인 채 말이 없다 끝내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남편과 부모에게 순종하며 불자로서 살기를 소원하였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기고

운동화 신고 재래시장 누비는 市長을 보고싶다

박인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다. 옛 선인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며 추석을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명절이라 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고단한 삶의 흔적'으로 얼룩져있다. 아버지는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번 명절엔 딱히 상여금조차 못 받고 어머니는 빠듯한 살림에 물가마저 치솟아 제수용품 마련에 한숨만 절로 나온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몇 년째 계속된 취업준비로 명절 때면 집안 어른들과 친척들 눈치에 걱정이 앞선다. 요즘 우리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7개월째 4%대의 고공행진을 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들어 전국적으로 5.3%, 광주는 5.2%까지 이르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던 2009년 이후 3년 만에 5%대로 진입했다고 한다.

물가대책에 실패한 기획재정부는 최근 물가지수 개편 방침을 내놓으면서 농산물 기준을 상품에서 중품으로 낮추고, 값싼 수입품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물가지수를 낮춰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이려는 정부의 '고식지계(姑息之計)'에 불과하다.

그런데 광주시의 물가안정책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 한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 7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국 7개 대도시의 물가모니터단, 소비자단체 등과 협약을 맺도록 지시하고 이 협약을 통해 대도시 간 물가동향을 공유함으로써 물가 동반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소비자단체끼리만 물가동향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친 채 시민들의 체감물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기에는 매우 미흡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광주시가 YWCA에 용역을 주고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각 자치구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49개 생활필수품 물가동향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균가격을 산출하며 품목을 누락시키거나, 종합 단가를 개별 단가로 오기하는 등 엉성하기 짝이 없는 통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5개 자치구간 물가동향을 공개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통한 물가안정 유도라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예산까지 투입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에 그친다면 물가안정에 대한 광주시의 의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어반폴리 준공, 디자인비엔날레 개막 등 연일 문화수도의 위용을 과시하는 언론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U대회 선수촌,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갈등도 계속되고 있다. 굵직한 현안사업과 대규모 투자유치 등 거시적 시정도 중요하지만 서민의 소박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물가안정대책이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고식지계'가 아닌 경제와 물가의 맥을 제대로 짚어내는 실효성 있는 물가안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부자들의 백화점 쇼핑카트보다 두부 한 모, 배추 한 포기 가격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한숨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광주시민들은 강 시장이 정장에 넥타이 차림을 한 채 외국투자자와 악수하고 있는 모습보다 평상복 차림에 재래시장 어귀의 굳은살 베긴 아주머니와 이야기 나누는 소박한 '민생현장의 시장'을 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의원〉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성범죄 피해 어린이 전담 치료센터 늘려야

날이 갈수록 성범죄 피해 아동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른 범죄 피해자와 다르게 성범죄는 그 특성상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낳는다.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 하물며 피해 당사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성폭행을 당한 어린이들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공포감, 피해의식 등을 상시로 가지고 산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흔한 일이다.

성범죄 피해 어린이들은 커가는 과정에서 다시 상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를 위한 전문 시설과 지원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얼마 전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정신적 충격을 치료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를 제대로 갖춘 전담치료센터는 전국에 단 세 곳뿐이었다. 다른 병원이나 상담소가 연계돼 있는 곳도 30곳뿐이라고 한다.

아동 성범죄 피해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비해 치료기관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부모가 먼저 포기한다면 이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안일한 무관심 속에서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 어린이와 부모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서둘러 줘야 할 것이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사설

MB정권, 언제까지 광주·전남 배제할 건가

2년 만에 광주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지역 숙원사업에 대해 이렇다할 지원 약속 없이 그냥 돌아가 결국 지역민에게 커다란 실망감만 안겼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 표명과 약속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지역발전주간' 개막식과 뒤이어 열린 지역 주요 인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건의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한 뒤 귀경했다.

따라서 광주시의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과 전남의 F1 대회 국비 지원,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노선 신설 등 최우선 숙원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커졌다. 유일한 소득이라면 강운태 시장이 요청한 동북아 상품거래소의 광주 사업단 구성에 대해 "직접 챙겨 보겠다"고 답변한 것 뿐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F1대회와 내년도 여수엑스포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각 시·도가 품앗이하듯 서로 도우면 대회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 국비 지원을 바라는 지역민의 여망을 비켜갔다.

우리는 현 정부 들어 초지일관 광주·전남을 배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이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 걸었던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제시했다. 공정과 공생에는 지역 격차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 정권이 유독 광주·전남에 홀대하고 있다는 것은 국정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여망을 저버린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지역민심이 결코 방관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대 정년교수들의 사회공헌 환영한다

전남대 정년퇴임 교수들이 사회공헌 조직을 만들어 지역 청년들의 창업 돕기에 나선다고 한다. 전남대 퇴임교수 모임인 '전목회' 소속 22명의 정년교수들은 8일 전국 최초로 '전남지역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청년 창업을 돕는 '멘토'로 나선 것이다.

이 사업단은 광주·전남지역 청년 사회적 기업 21개팀과 결연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강단에서 쌓아온 정년교수들의 전문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정년교수들의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 그리고 청년 기업가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어우러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서비스 및 사회공헌 문화 등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붙잡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퇴직자들이 대부분 부딪히는 절실한 문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퇴직자의 60.9%가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22.7%) 보다 거의 3배나 됐다. 무급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응답도 26%가 넘었다.

하지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능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주선하는 활동이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직자들이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인 것이다. 무엇보다 퇴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사장(死藏) 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전남대 정년교수들이 광주NGO시민재단 등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 사회적 공헌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보다 많은 퇴직자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와 지자체도 퇴직자들의 사회적 공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고생 일기

"키티, 바깥 세상은 너무도 무서워. 불쌍한 유태인들이 밤낮없이 끌려가고 있어. 그들은 끌려가면서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겨.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따로 떼어 놓아, 가족이 산산이 흩어지고 말아."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랑크가 나치 치하인 1943년 1월 13일에 쓴 일기의 일부분이다. 14세 소녀의 눈에 비친 나치의 만행과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키티, 나는 가끔 견딜 수 없는 우울에 빠져. 주위의 분위기가 숨막힐 듯이 답답해. 납같이 무겁고 괴로워."라며 전쟁 중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

'키티'는 안네의 애칭으로 그녀는 13세 생일날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달아 2년 2개월간의 기록을 남겼다.

"공수부대는 몽둥이, 대검, 총으로 시민을 무차별 살해했고 구경하던 어린이, 할머니까지 살해했다." 1980년 5월 23일. 광주여고 3년 주소연양은 게엄군의 만행을 이렇게 적었다. 24일에는 "영어는 믿어도 한국어는 못 믿는다"며 언론의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주양은 당시 시민군들의 최후 항전지였던 전남도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목격한 5·18의 상황을 일기로 적었다. 18세 소녀는 대학노트에 '시사노트'라는 제목을 달아 5·18을 기록했다. 일명 '한국판 안네의 일기'로 불리는 이 일기는 A4용지 9장 분량으로 양은 많지 않지만 '10일 항쟁'인 5·18을 소녀의 시각에서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지난 5일 유네스코 총회 의장이 광주를 방문해 인증서를 전달하면서 한국판 '안네의 일기'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총 분량이 문서 4271건과 사진 2017컷에 달하는 5·18 기록물의 하나지만 상징성이 크다. 한국판 안네의 일기라는 이름 대신 고유의 이름을 지어주는 작업은 우리들의 몫이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